MY BIBLE FIRST B46

몹시 분주한 밤
옥수수 알갱이

자기 희생적인 선교사역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Table of contents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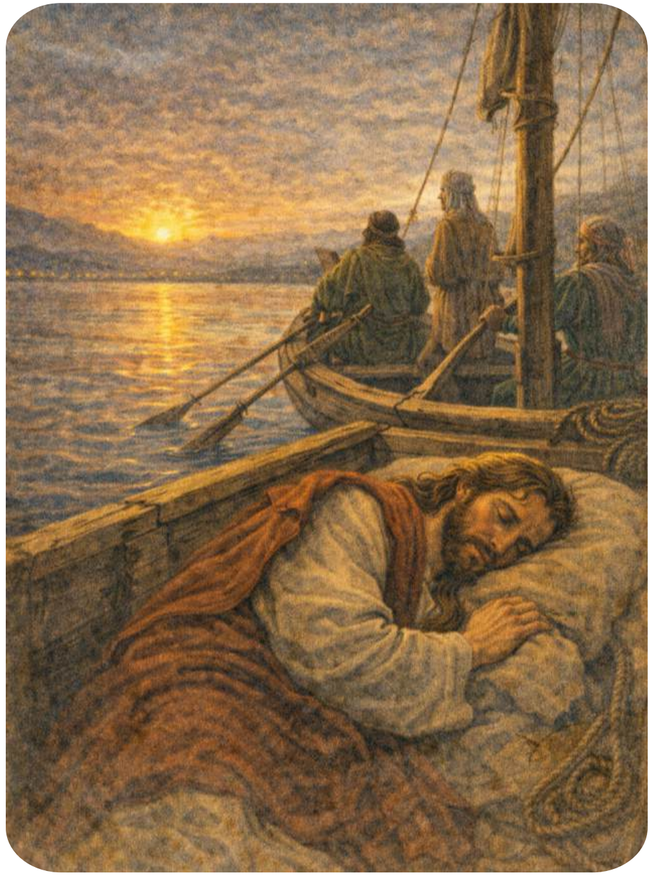
01 성경말씀 회상하기

02 중심생각 연결하기

03 천연계로 확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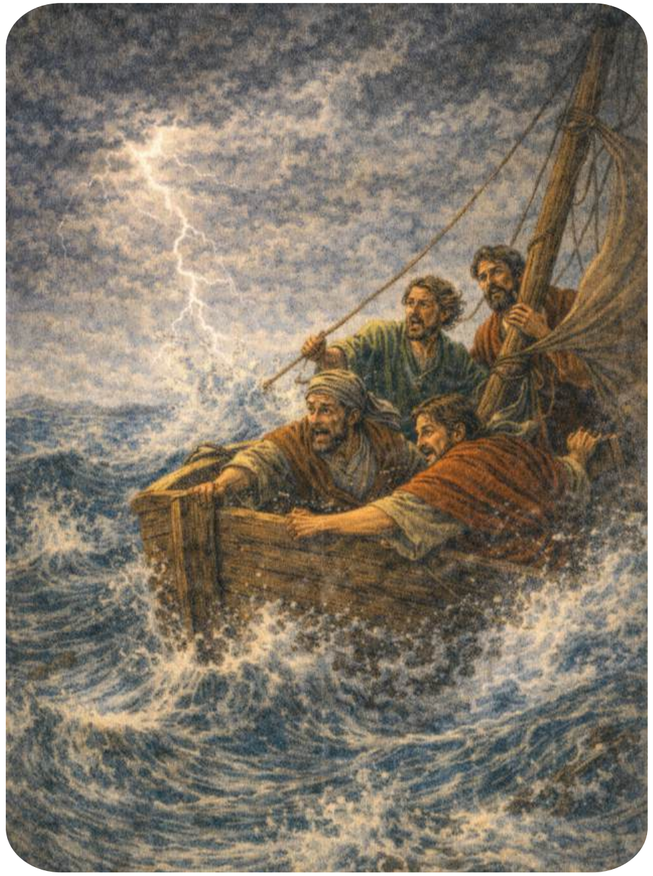
04 성경학습활동 1

05 성경학습활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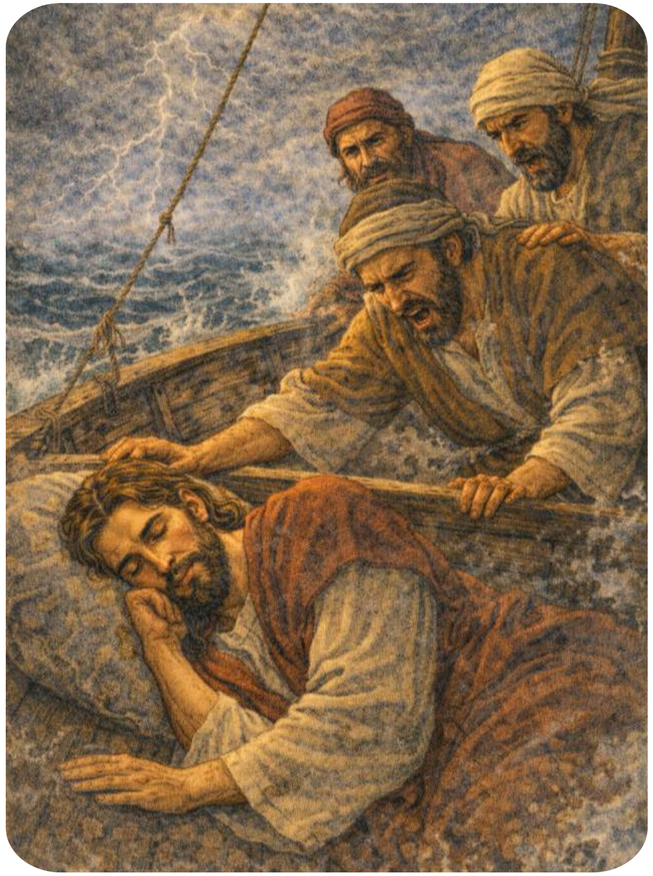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쳐 주신 예수님은 몹시 피곤하셨어요. 해가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곧 깊이 잠드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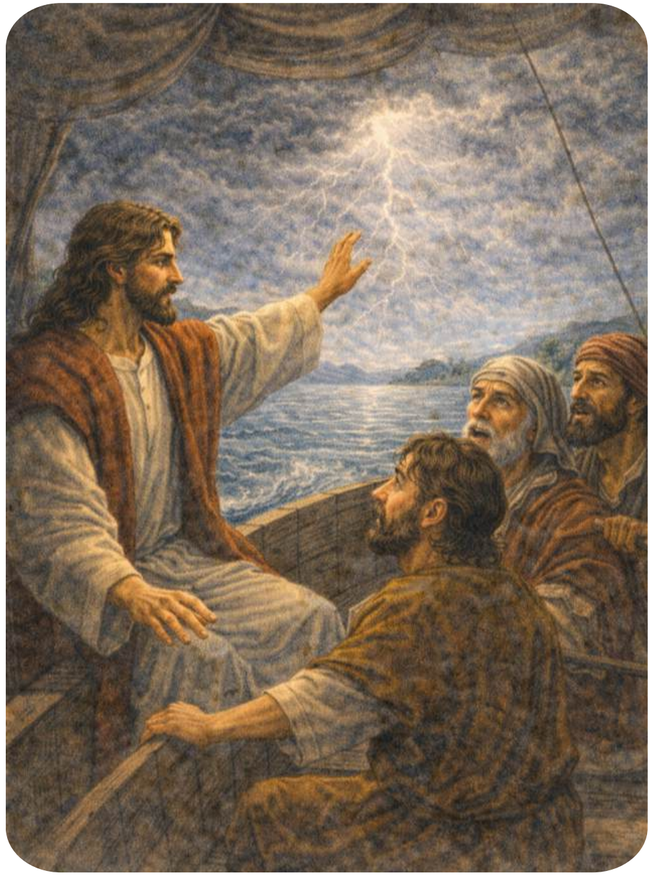
조용하던 호수에 갑자기 검은 구름과 거센 바람이
몰아쳤어요. 파도가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제자들은 아무리 애써도 배를 지킬 수 없었어요.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배 뒤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떠올리고
다급하게 깨웠어요.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뿐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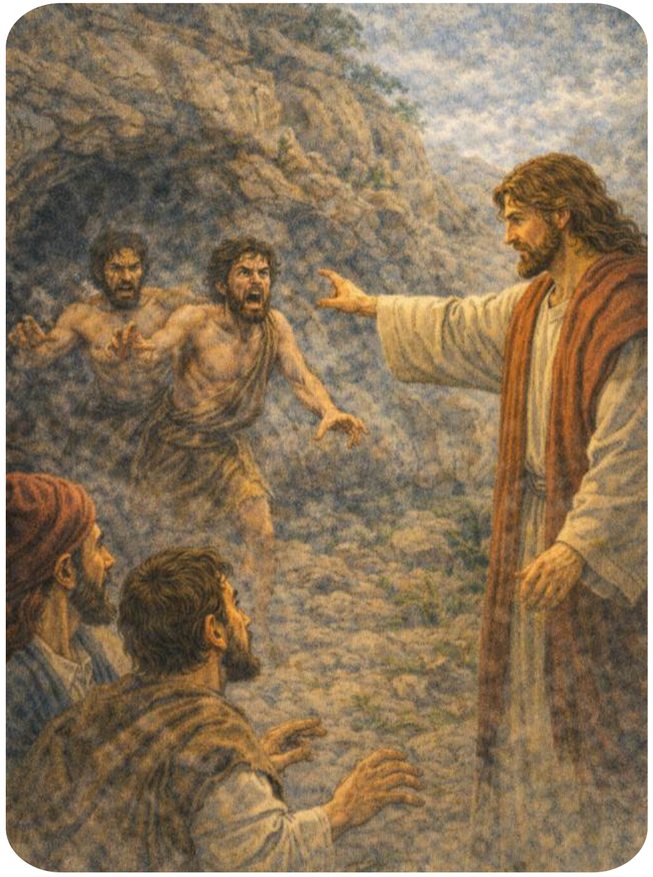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거센 폭풍은 곧 멈추고 호수는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은 크게 놀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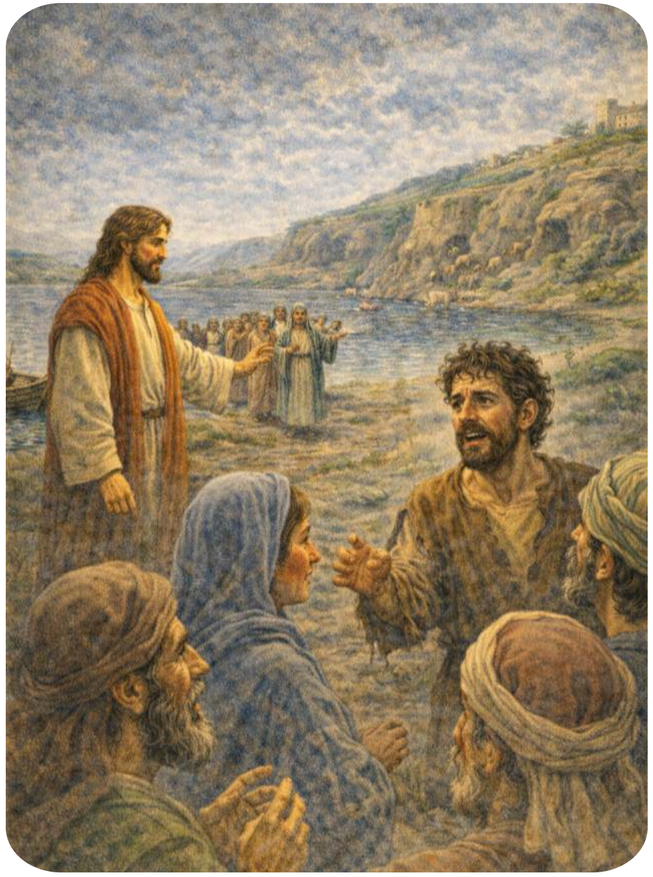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는지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그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제자들은 공동묘지 근처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어요.

모두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악한 영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온전히 회복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하러 보내졌어요. 예수님은 억지로 따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 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자기 희생적인 선교사역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옥수수 알갱이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해 모든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옥수수 씨앗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자라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옥수수는 어떻게 자랄까

옥수수는 한 알의 씨앗에서 자라요. 씨앗은 땅에 묻히며 겉모습은 사라지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돼요.
농부는 보이지 않아도 기다려요.







사람들은 구운 옥수수만 떠올리지만,
옥수수는 가루·기름·시럽·칩처럼 아주 많은 곳에 쓰여요.
또 많은 옥수수는 동물의 먹이가 되어요. 작은 씨앗이 큰 일을 해요.

한 알이 수백 알이 되는 비밀

옥수수 한 대에는 보통 400–800개의 알이 열려요. 한 알이 땅에 묻혀 사라지면, 훨씬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에요.



씨앗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옥수수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햇빛과 물, 시간과 돌봄이 필요해요.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땅속에서는
자라고 있어요.



외로워 보여도 의미 있는 자리

밭 한가운데 심긴 씨앗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며 다른 생명을 살릴 준비를 해요.

보이지 않아도 중요한 일이에요.



작은 씨앗이 모두를 살려요

잘 자란 옥수수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요.

씨앗 하나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힘이 돼요. 작은 시작은 큰 결과를 만들어요.



씨앗이 된 사람

예수님은 고침 받은 사람을 멀리 데려가지 않고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 사람은 씨앗처럼 그 자리에 남아 변화를 전했어요.
예수님의 일은 그렇게 퍼져요.



옥수수
밀알 데이

여러분, 딱딱하고 작은 옥수수 씨앗을 본 적 있나요?
손으로 만져보면 단단하고, 그냥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묻히면
시간이 지나 큰 옥수수가 되고,
수백 개의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오늘 우리도 밀알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사람들에게 전해 볼까요?



옥수수 밀알 데이

<준비물>



- 팝콘용 옥수수





- 루페 또는 스마트폰 현미경





- 팝콘 제조기
  혹은 전자렌지







- 꾸미기 재료(도일리 페이퍼, 리본, 사인펜, 스티커 등)



옥수수 밀알 데이

<활동 방법>

[활동1 : 옥수수 밀알 관찰하기]

1. 말린 옥수수 알갱이(씨앗)를 루페나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이 씨앗은 만져보니 어떤 느낌이 나나요?"
"이렇게 작고 딱딱한 알갱이가 무엇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씨앗 하나에서 몇 개의 옥수수가 열릴 것 같나요?"



옥수수 밀알 데이

<활동 방법>

2. 밀알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한 알의 씨앗은 땅에 묻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야기 나눈다.

"씨앗이 땅에 묻히면,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옥수수 밀알 데이

<활동 방법>

[활동2 : 옥수수 요리]

3. 옥수수로 어떤 요리를 해볼지 이야기 나눈다.
- “우리가 만든 옥수수를 누구에게 나누어 주고 싶나요?”
- “이 옥수수가 어떻게 ‘사랑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요?”
- 우리 교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옥수수로 어떤 요리를 만들어 주면 좋을까?
  (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옥수수 요리로 활동 정하기)

4.투명한 팝콘 제조기(또는 팬)를 이용해 딱딱한 알갱이가 팝콘으로 변하는 과정을 지켜본다.

옥수수 밀알 데이

<활동 방법>

[활동3 : 사랑의 팝콘 전도]

4. 준비된 봉투를 예쁘게 꾸미고 팝콘을 담는다.
- 어떤 문구와 그림으로 꾸며 주면 좋을까?
- 이 봉투를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

5. 마을 주변(경비실, 이웃집, 공원 등)으로 나가 사랑의 팝콘 전도 활동을 한다.



옥수수 밀알 데이

<활동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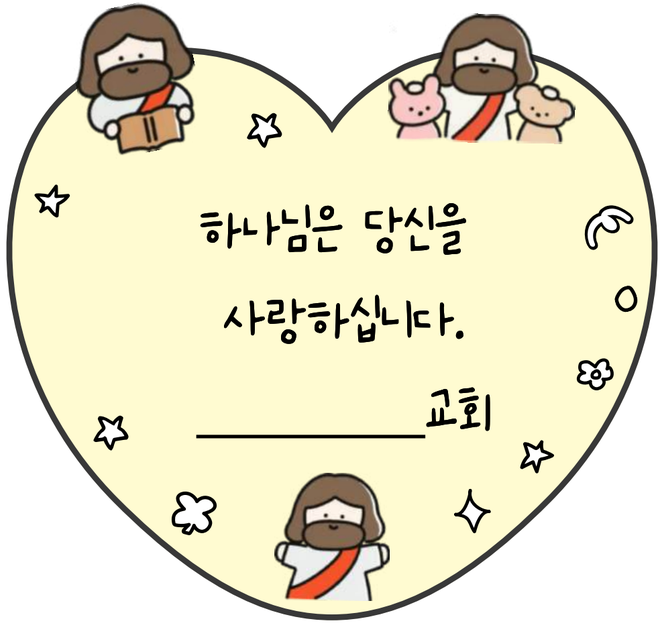
[마무리 : 뿌려진 밀알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6. 우리가 뿌린 밀알이 좋은 결실이 되도록 기도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 오늘 우리는 어떤 밀알을 땅에 심었니?
- 오늘 밀알데이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니?
- 우리가 뿌린 씨앗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 다른 사람들 마음에 잘 심어졌을거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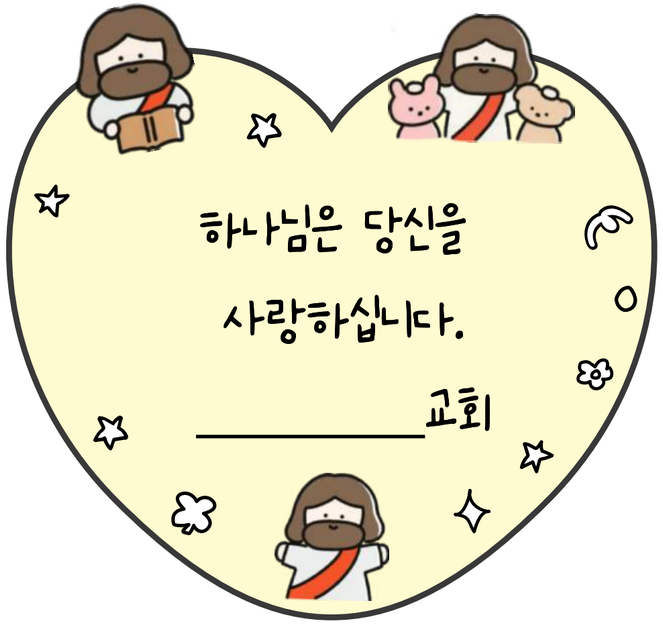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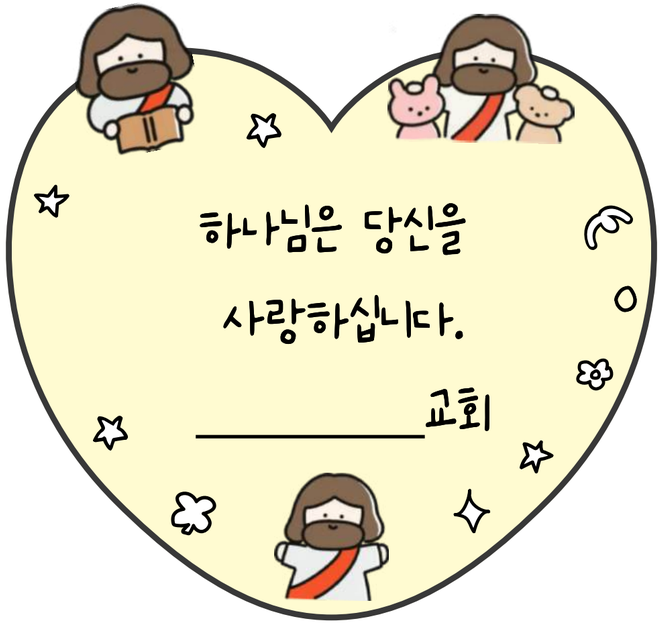
예수님 아직 어리지만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뿌린 작은 씨앗이 누군가의 마음에 심어져 풍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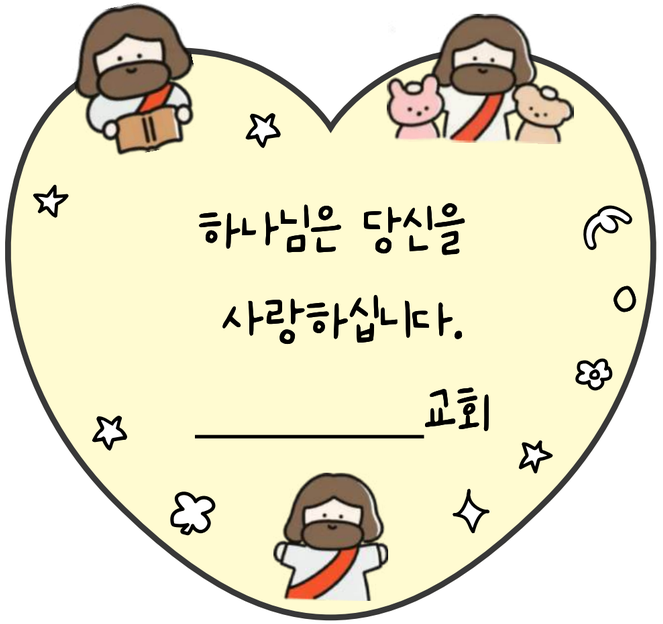
<전도용 스티커> : 접착 통라벨지에 출력하여 팝콘 봉투에 붙여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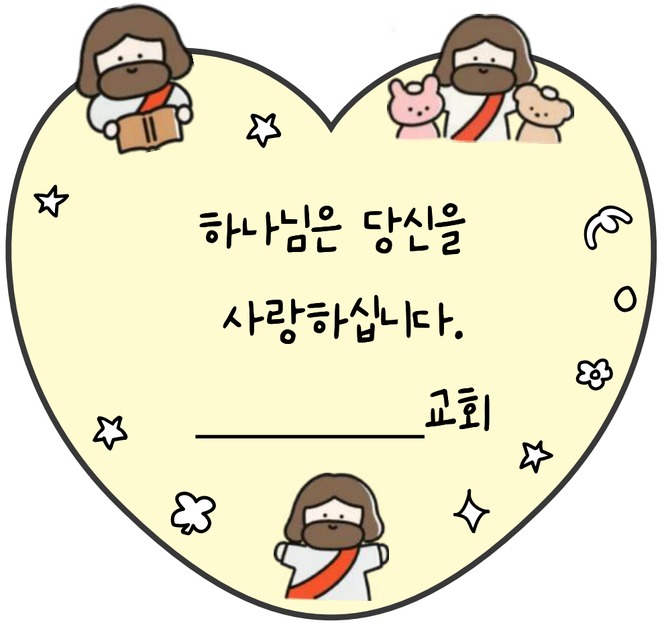












행복한 안식일 보내세요

